

# 1950년대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와 문화 교류\*

## - 1956년 조선 문화 대표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

윤 대 영\*\*

### 목차

- I. 머리말
- II. 1950년대 전반 북한과 북베트남의 교류
- III. 1956년 북한과 북베트남의 협력과 조선 문화 대표단의 활동
- IV. 송영의 문화 체험: '감성'과 '이성'의 교차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의 양국 관계가 발전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서 문화 교류가 담당했던 역할을 1956년 말 평양에서 하노이(Hà Nội)로 파견된 조선 문화 대표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950년부터 형성된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는 한국전쟁과 공식적인 외교관계 확립을 계기로 공고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차 깊어지게 된 양국의 유대감은 북한이 북베트남으로 대표단과 예술단을 파견하는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문화 교류는 1956년 공산 국가들 간의 공조 분위기에서 보다 다채로운 형태로 전개되어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긴밀해진 북한과 북베트남의 유대 관계는 1956년 말 조선 문화 대표단의 북베트남 방문과 현지에서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식적인 혹은

\* 본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북베트남 예술인들의 정확한 인명과 관련 활동을 추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류 티 썩(Lưu Thị Sinh, 인하대대학원 한국학과 박사과정)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교수 / popeyevn@sogang.ac.kr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현지 체험과 정보를 축적한 송영은 ‘감성적인’ ‘流路’와 ‘思問’을 거치며 북베트남 사회를 보다 깊게 이해하거나 현지 문화의 특수성을 통해 자국의 문제점을 ‘이성적으로’ 발견하고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후 북한과 북베트남의 문화 교류와 협력은 다방면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갔고, 이어서 1957년 7월 호찌민의 북한 방문과 1958년 11월 김일성의 북베트남 방문으로까지 이어졌다. 1956년에 북베트남으로 파견된 조선 문화 대표단의 활동은 1950년대 말 북한과 북베트남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 기여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베트남민주공화국, 북한, 북베트남, 조선 문화 대표단, 송영

## I. 머리말

베트남의 친선 연합 소속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 협회’는 2012년 2월 22일 하노이(Hà Nội)에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기념모임”(Lễ kỷ niệm 100 năm ngày sinh chủ tịch Kim Nhật Thành)을 가졌다. 양국의 친선 협회 베트남 회장과 북한 대사는 “김일성 주석이 북한 인민들의 위대한 지도자인 동시에, 공산주의 운동과 국제 노동운동의 저명한 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민들의 절친한 친구였다”고 주장하였다.<sup>1)</sup> 사실, 1950년 초반 냉전 상황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양국 관계는 북한이 1979년 1월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을 비난하고 3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공’)의 베트남 침공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악화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동남아 국가 중 “북한과 가장 가까운” 베트남 출신 신임 아세안 사무총장 레 르영 민(Lê Lương Minh)이 북한의 전쟁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중재자로서 주목을 받게 되는<sup>2)</sup> 이유도 두 나라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여전히 무시할 수만은

1) AVI/CVN, “En l'honneur du centenaire du président Kim Il-sung,” *Le Courrier du Vietnam*, le 22 février 2012. <http://lecourrier.vnanet.vn/lecourrier/fr-fr/home/default.aspx> (검색일: 2012.02.23).

없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양국 관계가 형성된 배경과 과정에서 문화 교류가 담당했던 역할을 1956년 말 평양에서 하노이로 파견된 조선 문화 대표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 두 지역의 관계와 교류에 대한 검토는 한국 동남아학의 선구자인 金永鍵(1910~?)에 의해 개척되어 旌善 李氏와 花山 李氏의 고려 정착, 조선과 베트남 사신들의 遭遇, 양국 사람들의 표류나 상대국 방문, 식민지 시기의 상호 인식, 사회경제적 교류 및 양국 지식인들의 교류와 연대 활동 등과 같은 방면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sup>3)</sup>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 독립을 쟁취하게 된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 지역의 상관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는 주로 대한민국(이하 ‘남한’)과 베트남공화국(이하 ‘남베트남’)의 외교 관계, 경제 협력, ‘베트남전쟁’ 당시의 ‘월남 파병’, 민간 교류 등과 같은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sup>4)</sup>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과 베트남민주공화국(이하 ‘북베트남’) 두 지역을 포괄하여 하나의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자들은 양국의 ‘민족해방혁명’, 휴전안, 정치제도화 과정과 특성, 지도력 계승 방식과 리더십, 경제 상황, ‘毛澤東 사상’의 영향 등을 비교연구의 시각에서 진행하였다.<sup>5)</sup> 그리고 양국 관계에 대한 연구는 외교사적 입장에서 단순

- 
- 2) 신윤환, 「북한의 전쟁 위협과 아세안 바라보기」 『서남포럼 뉴스레터』 186(2013.04.10) [http://www.seonamforum.net/newsletter/letter\\_view.asp?id=240](http://www.seonamforum.net/newsletter/letter_view.asp?id=240) (검색일: 2013.04.17).
  - 3) 윤대영, 「김영건의 베트남 연구 동인과 그 성격」 『동남아시아연구』 19-3 (2009.10.31), 57~100쪽; 최병욱, 「한월 교류사 개관」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제24회 동아시아한국학 학술회의 자료집: 한국과 베트남 사신, 북경에서 만나다』(장소: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일시: 2013.02.21), 91~96쪽 참조.
  - 4) 崔常壽, 『韓國과 越南과의 관계』(서울: 韓越協會, 1966); 원용석, 『越南戰과 韓國』(서울: 元無任所長官室, 1966);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한국경제연구소, 『輸出振興을 위한 越南經濟研究』 海外經濟研究 1, 2(서울: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1969) 등이 초기의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 5) 류길재, 「베트남과 북한의 ‘민족해방혁명」 『한국과 제3세계의 민주변혁』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엮음(마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285~331쪽; 金學俊, 「韓國休戰에 關한 諸構想의 分析」 『論文集』 3(1976), 109~283쪽; 김달중,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 共編 『아시아 共產主義의

히 시기별로 접근하거나,<sup>6)</sup> 북한이 대동남아·대중국 정책을 수립하면서 북베트남을 대상으로 전개한 외교 전략의 양상과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sup>7)</sup> 북한의 ‘베트남전’ 참전 요인과 실상도 밝혀내었다.<sup>8)</sup>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비교연구, 외교사적 접근,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통한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는 북한이 정권 형성 초기부터 북베트남과 형성한 ‘동맹’ 관계와 이후의 발전 모습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1957년 7월 호찌민(Hồ Chí Minh, 1890~1969)의 평양 방문과 이후 1958년 11월 김일성(1912~1994)의 하노이 답방이 성사되기까지<sup>9)</sup> 양국 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호적인 연대’가 형성될 수 있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 양국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등장한 다양한 요인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요인들을 밝혀내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외교사료관이 나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몇몇 관련 문서와 남북한 측의 신문 자료를 이외에도, 1950년대 후반 평양에서 간행된 북베트남 관련 자료들을

持續과 變化: 中國·北韓·베트남(서울: 法文社, 1989), 67~106, 109~140, 173~202, 205~247, 389~420, 441~462쪽; 金昶熙, 「東아시아 共產主義 國家에 관한 比較 研究」 『호남정치학회보』 3(1991), 185~212쪽; 松本三郎, 川本邦衛 編, 『ベトナムと北朝鮮 - 岐路に立つ二つ國 -』(東京: 大修館書店, 1995).

- 6) 北韓研究所 編, 『北韓總監』(서울: 北韓研究所, 1983), 368~370쪽.
- 7) 고병철, 「북한의 대동남아정책」 박재규 편 『전환기의 동남아세아』(마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77), 296~301쪽; 洪圭德, 「북한의 대동남아정책: 남방외교의 평가」 『國際政治論叢』 34-2(1995), 37~54쪽; 박성관, 「북한의 대동남아 외교변화」 『國際政治論叢』 43-3(2003.09), 235~253쪽; 이상숙, 「1960년대 중반 북한-중국의 갈등과 북한의 자주노선」 『북한학연구』 3-2(2007), 151~172쪽; 조진구, 「중소대립, 베트남 전쟁과 북한의 남조선혁명론, 1964~68」 『아세아연구』 114(2003.12), 227~256쪽.
- 8) 1968년 당시 북베트남에서 활동하던 북한 공군 조종사들의 일화가 전직 CIA 베트남어 전문가였던 멀 프리브나우(Merle Pribbenow)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 멀 프리브나우(Merle Pribbenow), 「베트남 상공의 북한 조종사들」 『北韓』 486(2012), 92~95쪽 참조.
- 9) 「胡志明 北韓 向發」 『朝鮮日報』(1957.07.05), 1쪽; 「胡志明 北平 到着」 『朝鮮日報』(1957.07.07), 1쪽; 「28日 北越 到着 金日成 旅程」 『朝鮮日報』(1958.11.27), 1쪽; 「金日成 하노이 着」 『朝鮮日報』(1958.11.29), 1쪽; 「28日 ‘하노이’에서 胡志明 金日成 會談」 『朝鮮日報』(1958.11.30), 1쪽; 『영원한 친선』(평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9), 129~193쪽 참조.

수집해 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윤영천의 연구는 북한 측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베트남전쟁과 동아시아 문학의 연대’를 검토함으로써 당시 북한 정부 대표단의 공식적인 방문과는 별도로 진행된 양국 간 문화사절단 예방의 의의를 제시하여,<sup>10)</sup> 필자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었다. 그래서 1950년대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국제적 요인 이외에도 양국 간의 교류에 밀거름이 되었을 ‘문화적 요인’을 추적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을 바탕으로, 본고의 II장에서는 북한과 북베트남이 외교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과 한국전쟁이 양국 관계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이후, 1955년 북베트남으로 파견된 조선 인민 대표단과 여기에 동행한 예술단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1950년대 전반에 양국 사이에 진행된 문화 교류의 초기 양상을 조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III장은 1956년에 공산 국가들의 협력 관계가 다방면으로 진행되던 상황에서,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와 문화 교류의 구체적인 발전 상황을 10월 말에 북베트남으로 파견된 조선 문화 대표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당시 단장이었던 극작가 宋影(1903~1979)이 저술한 오체르크(ocherk)풍의 기행문 『월남일기』는 대표단의 활동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날짜 별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므로, 조선 문화 대표단 일행의 다양한 활동 모습을 밝혀내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송영 개인의 북베트남 문화 체험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공식적인 대표단 활동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그의 ‘감성’과 ‘이성’의 교차가 또 다른 형태의 문화 교류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 II. 1950년대 전반 북한과 북베트남의 교류

1950년대 전반에 진행된 북한과 북베트남의 교류 상황을 밝히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전개

10) 윤영천, 『형상과 비전』(서울: 소명출판, 2008), 274쪽.

된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도차이나반도에서 1945년 9월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성립된 지 3년 정도 지났을 무렵, 한반도에서는 1948년 8월 15일과 9월 9일에 각각 남북에서 독자적인 정권이 수립되었고, 이후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한국전쟁이 계속되었다. 그 무렵 1946년 11월에 발발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1954년 5월에 종결되자, 베트남은 그해 7월에 체결된 제네바협정에 따라 분단 국면으로 돌입하였다. 이후 베트남 남부에서는 바오 다이(Báo Đại, 1913~1997) 정권 시기를 거쳐 1955년 10월에 베트남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 정권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을까?

당시 북한과 북베트남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의 반공 정권이 상호 유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국가 승인 획득과 ‘자유’ 우방과의 우호관계 증진에 일차적 목표를 두었던 남한은 아시아의 신생 반공 국가인 필리핀과 1949년에, 태국과 1958년에 각각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는데,<sup>11)</sup> 이 과정에서 남베트남도 협력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1950년대 초반부터 상대국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 여부를 놓고 교류의 물꼬를 트기 시작한 양국 정부는 軍 수뇌부의 상호 방문, 한국군 파병 논의 등을 거치며 1956년 6월에 公使 관계를 확립할 수 있었다.<sup>12)</sup> 아울러, 이와 같은 외교적 교류 이외에도 남한과 남베트남 정부의 교류는 종교 지도자들의 방문, 국가적 재난에 대한 원조, 스포츠 및 친선 예술 사절단 교류 등의 형태로 확장되었다.<sup>13)</sup>

11) 外交通商部, 『韓國外交 50年: 1948~1998』(서울: 外交通商部, 1999), 59쪽.

12) 「韓國도 越南 承認」 『自由新聞』(1950.03.04), 1쪽; 「越南 承認 與否」 『自由新聞』(1950.06.22), 1쪽; 「越南 三國의 承認」 『朝鮮日報』(1950.06.22), 1쪽; 「越南軍 반 總參謀長 警務臺를 禮訪」 『朝鮮日報』(1953.04.29), 1쪽; 「自由越南訪問 丁一權大將」 『東亞日報』(1956.10.20), 1쪽; 「韓國軍 印支에 派遣」 『朝鮮日報』(1954.02.14), 1쪽; 「越南軍將校團 韓國軍見學次來韓」 『東亞日報』(1955.07.23), 1쪽; 「駐越公使被任 崔德新將軍」 『東亞日報』(1956.04.15), 1쪽; 「대사 파견 - 월남」(분류번호: 711.1VT, 등록번호: 20), 「대사 부임 - 월남」(분류번호: 711.2VT, 등록번호: 35), 『외교사료관문서』 등 참조.

13) 「一行四氏來韓 越南高台教代表」 『東亞日報』(1954.09.24), 1쪽; 「水害民 慰問 金 越南大統領 寄贈」 『東亞日報』(1956.08.21), 3쪽; 「白米等을 寄贈 越南서

이처럼 남한과 남베트남이 국가적 유대 관계를 다방면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었을 때,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는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어 나갔을까? 북베트남의 주석 호 쯔 민은 1950년 1월 14일 북한과 외교 관계 수립을 원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공주재 북한대사 李周淵(1903~1969)을 통해 외무상 朴憲永(1900~1955)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박헌영이 북베트남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는 내각의 결정을 북베트남 외교부장 호앙 민 잠(Hoàng Minh Giám, 1904~1995)에게 통보하여 31일에 쌍방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는 방침이 마련되자, 북한은 바로 다음 날 호 쯔 민 정권을 정식으로 승인하였다.<sup>14)</sup>

이후 한국전쟁 시기에 전개된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는 주목할 만하다. 1951년 5월 중순에 국제민주여성연맹(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조사단이 북한에 파견되어 현지의 전쟁 피해 상황을 조사하게 되었을 때, 당시 이 조사단에서 활동하던 “레티귀”라는 북베트남 대표가 신의주와 평양 이외에도 평안도 남포시와 강서군을 방문하여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바 있었다.<sup>15)</sup> 이에 김일성은 같은 해 ‘八·一五 해방 六주년 기념회의’에서 베트남 인민들의 반불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북베트남 측의 협조에 대한 동맹국 차원의 감사한 마음을 표명하였다.<sup>16)</sup> 마찬가지로, 북베트남 측도 1952년 7월 ‘조선전쟁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조선인민과 중화인민지원군의 영웅적 항전을 찬양하는”

우리 災民에 『東亞日報』(1956.11.04), 1쪽; 「베트남 水災民 救護키로 決定」 『朝鮮日報』(1957.02.20), 3쪽; 「베트남팀과 十二日 對戰 亞洲蹴球」 『朝鮮日報』(1956.09.11), 2쪽; 崔常壽, 앞의 책, 241~266쪽.

- 14) 北韓研究所 편, 앞의 책, 368쪽; 國會圖書館 海外資料局, 『北韓의 條約集: 1949~1982』 海外資料 第68號(서울: 國會圖書館, 1982), 437쪽; 「胡志明 正權을 北韓서도 承認」 『朝鮮日報』(1950.02.03), 1쪽. 1950년 1월 31일에는 소련이 정식으로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승인했는데, 북한의 북베트남 승인도 소련의 입장에 호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Milton Sacks, “The Strategy of Communism in Southeast Asia,” *Pacific Affairs* 23.3 (Sep., 1950), p. 243; L. H. Woolsey, “The United States and Indo-China,”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8.2 (Apr., 1954), p. 278.
- 15) 「국제녀성련맹 조사단의 보고서」 『國民報』(1951.08.22), 1쪽; 「국제녀성련맹 조사단의 보고서」 『國民報』(1951.10.03), 2쪽.
- 16) 「북선 尼 각수상 김일성 장군의 보고」 『國民報』(1951.10.10), 1쪽; 「북선 尼 각수상 김일성 장군의 보고」 『國民報』(1951.10.17), 1쪽.

동시에 미군의 세균전과 거제도 수용소의 포로 처우 상황을 비난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주둔 중인 외국 군대가 철수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sup>17)</sup>

또한, 한국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던 1951년 8월 말에 북한을 방문한 북베트남 인사들의 경우도 흥미롭다. 당시 북베트남 대표단에는 단장으로 민족통일전선 전국위원회 부주석 호앙 꾸옥 비엣(Hoàng Quốc Việt, 1905~1992)이, 단원으로 위생부 차장 툐 텃 둥(Tôn Thất Tùng, 1912~1982), 선전문예부 부장 또 흐우(Tô Hữu, 1920~2002)와 중앙선전부 문예소조 조장 호아이 타인(Hoài Thanh, 1909~1982) 등이 참가하여 북한 농민 대표자들과 좌담회를 가지고 평양 시내 공장들을 시찰하였다.<sup>18)</sup> 그리고 북베트남 대표단 일행은 동부 전선의 월비산<sup>19)</sup> 고지를 방문하여 전투를 독려하고 돌아가다가 미군의 “썩썩이”에 급습을 당하여 거의 죽을 뻔하였다. 그래서 호앙 꾸옥 비엣은 이러한 사건이 인연이 되어 귀국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을 “청천강”이라고 짓게 되었다고 한다.<sup>20)</sup> 그리고 북베트남 병사 꾸 쩐 란(Cù Chính Lan, 1930~1951)은 북한의 “전투 영웅” 김근옥과 김기우에 관한 서적을 보고 용감하게 탱크를 파괴하였다는 일화가 있다.<sup>21)</sup> 아울러, 바나르(Bahnar)족 출신으로 항불전쟁 시기의 영웅 딘 늑(Đinh Núp, 1914~1999)이 “우리들이 밀림 속에서 빨치산 투쟁을 할 때에 가끔 들려오는 조선 인민군의 영웅적인 승리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고무되고 용기가 백배 천배 더했습니다”라고 회상하는 당시의 상황도 고려한다면,<sup>22)</sup> 한국전쟁이 북한과 북베트남의 초기 정서적 결속을 보다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17) 「안남과 범아에서 조선전칭 기념」 『國民報』(1952.08.06), 3쪽.

18) 「월남인민대표단 일행 래조」 『로동신문』(1951.08.23), 1쪽; 「월남인민대표단」 『로동신문』(1951.08.27), 3쪽; 송영, 『월남일기』(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45쪽. 송영은 북베트남 대표단의 북한 방문을 1952년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오류로 보인다.

19) 한국군과 유엔군이 1951년 5월 중공군의 대공세로 대관령까지 후퇴하게 되었을 때, 월비산은 동부전선의 주저항선을 강화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장악하여야 하는 지점이었다.

20) 송영, 『월남일기』, 45쪽.

21) 「월남 청년 대표단 단장 류밍취」 『로동신문』(1956.11.06), 4쪽.

22) 송영, 『월남일기』, 53쪽.



이러한 상황에서, 1951년 2월에 개최된 제2차 전당대회를 통해 베트남노동당을 창설한 북베트남 정권이 중국혁명의 경험과 ‘모택동 사상’의 학습을 강조하면서 중공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1953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공과 외교적 교섭을 추진하게 되었다.<sup>23)</sup> 이에 북한은 소련 및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중공 이외에도 북베트남 정권과의 유대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그래서 1955년 2월 12일에 북베트남주재 북한대사로 徐哲(1907~1992)이 임명되고 10월 25일에 북한주재 북베트남대사 호앙 반 호안(Hoàng Văn Hoan, 1905~1991)이 임명됨으로써, 양국 간의 외교관계가 공식적으로 개설되었다.<sup>24)</sup> 그리고 이 과정에서 教育相 白南雲(1895~1974)을 단장으로 하는 14명의 조선 인민 대표단이 1955년 7월 28일 40일 동안의 북베트남 방문에 나서게 된 것이었다.<sup>25)</sup>

8월 7일 하노이에 도착한 북한 대표단은 이튿날 저녁에 직업총동맹 위원장 호앙 꾸옥 비엣의 안내로 주석부를 방문하여 주석 호 쯔 민, 수상 팜 반 동(Phạm Văn Đồng, 1906~2000),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툐 득 탕(Tôn Đức Thắng, 1888~1980), 노동당 총비서 쩡 응 쩌 (Trương Chinh, 1907~1988), 총사령관 보 응우옌 갑(Võ Nguyên Giáp, 1911년생) 등을 예방하였다.<sup>26)</sup> 그리고 이후 조선 인민 대표단의 공식 일정은 하노이시 행정위원회와의 접촉, 북베트남 인민군의 열병식 참관과 수도 연대 및 하이 풍(Hải Phòng) 충용 연대 방문, 第5聯區 文工團(일종의 문예선전부)과의 좌담회, 베트남민주공화국 선포 10주년 행사 참석 등으로 이어졌다.<sup>27)</sup>

23) 유인선,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 양국관계의 어제와 오늘 -』(서울: 창비, 2012), 361~362쪽; 「胡志明 北京 訪問」 『東亞日報』(1953.05.19), 1쪽; 「周恩來와 胡志明 國境 某處서 會談」 『東亞日報』(1954.07.08), 1쪽; 「周胡 會談 開催」 『朝鮮日報』(1954.07.09), 1쪽.

24) 北韓研究所 편, 앞의 책, 368쪽.

25) 「월남 방문 조선 인민 대표단 출발」 『로동신문』(1955.07.29), 1쪽; 「월남 방문 조선 인민 대표단 하노이에 도착」 『로동신문』(1955.08.10), 3쪽.

26) 「월남 방문 조선 인민 대표단 하노이에 도착」 『로동신문』(1955.08.10), 3쪽; 「조선 인민 대표단의 월남 체류」 『로동신문』(1955.08.20), 1쪽; 변희근, 「영웅의 나라 월남」 『국제적 빛을 찾아서 - 몽고, 월남,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방문기』(평양: 국립출판사, 1956), 113~114쪽; 송영, 『월남일기』, 45쪽.

그런데 당시 조선 인민 대표단은 60명으로 구성된 조선 예술단을 동행하고 있었다.<sup>28)</sup> 이미 1945년 말부터 당시까지 소련, 몽고, 체코슬로바키아, 중공, 불가리아 등과 문화적 협력을 강화해 오던 북한이 북베트남으로 예술단을 파견하게 된 이유도 백남운의 언급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문화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sup>29)</sup>

실제, 당시 예술단의 단장 시인 趙鶴來와 소설가 변희근(1924~1989)은 체류 기간 동안 북베트남의 신예 작가 다오 부(Đào Vũ, 1927~2006)와 사귀게 되었고, 자신들의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이듬해 각각 시집 『한즘의 흙』(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59쪽)과 기행문 「영웅의 나라 월남」(『국제적 벼을 찾아서 - 몽고, 월남,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방문기』, 평양: 국립출판사, 111~147쪽)을 출간할 수 있었다.<sup>30)</sup> 그리고 조선 인민군 협주단을 위시한 예술단의 공연은 8월 8일 주석부 후원에 설치된 노천 무대 공연을 시작으로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의 공장, 회사, 부두, 학교 등지에서 계속되었다.<sup>31)</sup> 특히, 하노이 근처의 자 림(Gia Lâm) 철도 공장, 흥 가이(Hồng Gai) 지역의 검 파(Cẩm Phả) 탄광, 안 장(An Giang) 성(省)의 안 푸(An Phú) 전기공장 등지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32)</sup>

27) 조학래, 「월남 시조」 『국제적 벼을 찾아서 - 몽고, 월남,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방문기』(평양: 국립출판사, 1956), 117, 136, 156, 159쪽; 조학래, 『한즘의 흙』(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25, 138쪽; 「월남 민주 공화국 선포 - 0주년에 제하여」 『로동신문』(1955.09.05), 5쪽.

28) 「월남 방문 조선 인민 대표단 출발」 『로동신문』(1955.07.29), 1쪽.

29) 國會圖書館 海外資料局, 『北韓의 條約集』, 435쪽; 北韓研究所研究室 「北韓年表」 『北韓』 3(1972.03), 283쪽; 北韓研究所研究室, 「北韓年表」 『北韓』 5(1972.05), 322~324쪽; 調查研究室, 「北韓年表」 『北韓』 6(1972.06), 331~332쪽; 調查研究室, 「北韓年表」 『北韓』 7(1972.07), 314~315쪽; 「월남 방문 조선 인민 대표단 하노이에 도착」 『로동신문』(1955.08.10), 3쪽. 참고로 1946년 3월 5일 공산당과 소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의해 결성된 ‘예술총연맹’은 사회주의 국가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도모하자는 문예정책을 수립하였다. 宋敏鎬, 「北韓의 文藝政策과 ‘種子論」 『北韓』 65(1977.05), 157~158쪽.

30) 조학래, 『한즘의 흙』, 100쪽; 송영, 『월남일기』, 62~63쪽.

31) 「월남 방문 조선 인민 대표단 하노이 주민들과 회합」 『로동신문』(1955.08.14), 5쪽; 변희근, 「영웅의 나라 월남」, 113, 115쪽; 송영, 『월남일기』, 72~73쪽.

40일간의 체류 일정을 마치고 9월 16일 아침 대표단과 함께 북한으로 출발한 예술단은 다음 날 국경 도시 랑 썬(Lang Son)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기까지 총 24회에 걸쳐 25만 여명의 관객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sup>32)</sup> 이 과정에서, 예술단은 조선의 노래와 춤 외에도 다양한 베트남 노래들을 베트남어로 불러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고, 베트남 인민군 총정치국 중앙문공단은 조선 인민군 협주단으로부터 여성 중창곡 전시 가요 「샘물터에서」(崔露沙 작사, 1952), 남성 사중창곡 「운전사의 노래」, 群舞 「나비춤」 등을 배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한 북베트남 정부는 예술단에게 제1급 노력 훈장을 수여한 것이었다.<sup>34)</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한과 남베트남이 다양한 모습으로 교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을 때, 북한과 북베트남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해 더욱 결속된 양국의 유대감은 북한이 북베트남으로 대표단과 예술단을 파견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1955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문화 교류는 1956년 공산 국가들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보다 다채로운 형태로 전개되어 나갔는데, 이와 관련하여 1956년 말 북베트남으로 파견된 조선 문화 대표단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2) 변희근, 「영웅의 나라 월남」, 115~119, 121쪽; 송영, 『월남일기』, 122, 140, 146쪽; 「조 월 량국 인민간의 불패의 뉴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로동신문』(1955.09.26), 1쪽. 예술단의 공연은 하이 풍, 남 딘(Nam Định) 성, 타이 빈(Thái Bình) 성, 하 남(Hà nam) 성, 박 닌(Bắc Ninh) 성, 타이 응우옌(Thái Nguyên) 성 등지에서도 진행되었다.

33) 「예술 방문 조선 인민 대표단과 예술단 조선을 향하여 출발」 『로동신문』(1955.09.19), 1쪽.

34) 「호지명 대통령이 월남 방문 조선 인민 대표단을 접견」 『로동신문』(1955.08.12), 1쪽; 송영, 『월남일기』, 120~122쪽; 「조 월 량국 인민간의 불패의 뉴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로동신문』(1955.09.26), 1쪽. 북베트남에서는 1950년부터 소련과 중국의 군중 무용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대불항전 시기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이 종결된 1954년부터 북한 이외에도 루마니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예술단들이 북베트남 무용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송영, 『월남일기』, 82~83쪽.

### Ⅲ. 1956년 북한과 북베트남의 협력과 조선 문화 대표단의 활동

1956년에 들어서 북한과 북베트남의 교류 공간은 더욱 확대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56년 6월 12일 北京에서 소련, 중공, 북한, 북베트남이 함께 「태평양 서부에서의 어업, 해양학 및 湖沼學 연구의 협조에 관한 협정」을 조인하였다.<sup>35)</sup> 그리고 8월에는 레닌그라드에서 중공, 북한, 북베트남에 대한 전람회가 개최되었고,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북경에서는 중공, 몽고, 북한, 북베트남이 체육회의를 진행하였다.<sup>36)</sup> 이후 10월 23일 북경에서는 소련, 중공, 몽고, 북한, 북베트남 등 5개국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기상국장 및 체신 관계자 회의가 개최되었다.<sup>37)</sup>

1956년 당시 북한의 정세를 분석한 평양주재 헝가리대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극동 지역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점차 평화가 찾아오자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도 교류를 강화한다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sup>38)</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56년 2월 말 남베트남 정권의 단독 선거 시도가 제네바협정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던 북한은 4월 23~29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에 베트남노동당 대표단을 초청하였고, 5월 말에는 자국의 민주여성동맹 대표들을 북베트남 민주여성동맹 제2차 전국 대회에 파견하였다.<sup>39)</sup> 그리고 북한의 民靑(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위원회도 11월 3~8일에 개최된 민청 제4차 대회에 소련, 중공, 몽

35) 國會圖書館 海外資料局, 『北韓의 條約集』, 443쪽.

36) 「레닌그라드에서 중국, 조선 및 월남에 관한 전람회 개최」 『로동신문』(1956.08.11), 3쪽; 「조선 몽고 및 월남 체육 대표단의 중국 체류」 『로동신문』(1956.08.20), 3쪽.

37) 「조, 쑨, 중, 월, 몽 5개국 기상학 회의」 『로동신문』(1956.10.27), 4쪽; 「Évvégi összefoglaló 1956, Phenjan」(1956년 보고서, 평양), 생산기관: 헝가리 국립기록보존소, 관리번호: CTA0005227, 등록일자: 1957.06.03, 『국가기록원문서』, 39쪽. 해당 문서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Nyiri Borbala님께 감사사를 표한다.

38) 「Évvégi összefoglaló 1956, Phenjan」, 1~52쪽 참조.

39) 「남부 월남에서의 단독 ‘선거’ 시도를 각계에서 항의 규탄」 『로동신문』(1956.02.29), 1쪽; 「조선 로동당 제3차 전당 대회에 참가할 월남 로동당 대표단 평양에 도착」 『로동신문』(1956.04.18), 1쪽; 「조선 녀성 대표단 등 월남 민주 녀성 동맹 전국 대회에 참가차 하노이에 도착」 『로동신문』(1956.05.26), 1쪽.

고, 일본, 네팔 이외에 북베트남의 대표자들도 초대하였다.<sup>40)</sup>

이처럼 1956년에 북한과 북베트남 유대 관계가 다방면으로 강화되어 나갈 때, 북한과 북베트남의 문화 교류는 어떠한 형태로 더욱 구체화되고 있었을까? 자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면서 소련과 중공을 위시한 “형제 국가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문화를 도입하려는 북한의 대외 전략은 1955년에 개시되어 그 이듬해에 본격적인 실현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sup>41)</sup> 마찬가지로, 북베트남도 1956년에 이르면 동구권 공산 국가들, 중공, 인도와 문화 대표단 상호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sup>42)</sup>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인도 작가들의 발기에 의하여 1956년 7월 28일부터 뉴델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아시아 작가 회의 준비 회의에 참가한 조선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徐萬一의 일화는 흥미롭다. 7월 14일 여정에 올랐던 그와 영어 통역 “김동무”<sup>43)</sup>는 중공 대표단과 함께 24일 북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雲南省의 昆明, 버마의 만드레이(Mandalay)와 양곤(Yangon) 등지를 경유하여 26일 목적지에 도착하였다.<sup>44)</sup> 당시 입국 수속을 마친 서만일이 인도 측 환영단과 악수를 주고받고 있을 때, “벤히간! 벤히간!”이라고 하며 서만일의 목을 끌어안던 북베트남 시인 쭈언 지에우(Xuân Diệu, 1916~1985)는 1955년 자신의 나라를 방문했던 변희근을 외치면서 북한 대표에게 우정을 표시하고자 했던

40) 『Évvégi összefoglaló 1956, Phenjan』, 45쪽; 「민청 제4차 대회에 참가할 각국 청년 대표단 래조」 『로동신문』(1956.11.04), 7쪽; 「민청 제4차 대회 폐막」 『로동신문』(1956.11.09), 6쪽;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4차 대회 제3일 회의」 『로동신문』(1956.11.06), 3쪽; 「월남 청년 대표단 단장 류밍취」 『로동신문』(1956.11.06), 4쪽.

41) 송영, 『월남일기』, 253~254쪽.

42) 송영, 『월남일기』, 254쪽.

43) “김동무”는 1956년 12월 말 뉴델리에서 개최된 북한 측 대표 韓雪野(1900~1976)와 서만일의 영어 통역이었던 金風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천성이 명랑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이 “김동무”는 동남아시아의 이모저모를 잘 알고 있어 “가끔 우스운 이야기를 꺾집어내서” 당시 서만일의 무료함을 덜어 주곤 하였다. 堀田善衛, 『インドで考えたこと』(東京: 岩波書店, 1957), 120쪽; 서만일, 『인도기행』(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7쪽.

44) 「아세아 제국 작가 회의 준비 회의에 참가할 조선 작가 동맹 대표 평양을 출발」 『로동신문』(1957.07.16), 3쪽; 서만일, 『인도기행』, 5~9, 25~27, 51, 57쪽.

것이다.<sup>45)</sup> 이 일을 계기로 서만일은 또 다른 북베트남 대표 중의 한 사람이었던 소설가 응우옌 쑹 호안(Nguyễn Công Hoan, 1903~1977)과도 친분을 쌓으면서, 준비회의가 진행되던 28일에 “조국의 남반부에서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동족 작가들을 [본회의에] 초대하자”는 양국 공동의 제의를 준비 위원회 측에 전달할 수 있었다.<sup>46)</sup>

그리고 약 한 달 후 평양에서 북한과 북베트남 정부 사이에 ‘1956년 문화 교류 계획서’가 교환되었는데, 여기에는 양국 간의 문화 대표단 파견과 기타 “문화인들”의 상호 왕래가 명시되어 있었다.<sup>47)</sup> 이와 관련하여, 비록 직접적인 문화 교류의 형태는 아니었다고 해도, 당시 북베트남 문예회 총서기로 재직하고 있던 응우옌 뚜언(Nguyễn Tuân, 1910~1987)이 1956년 여름 북경 『人民報』에 발표한 「월남의 문예계」는 북한에서도 번역되어 문화 선전성의 종합예술잡지인 『조선 예술』(1956년 9월 창간)에 발표되었다.<sup>48)</sup> 이어서 9월 3일에는 베트남민주공화국 선포 11주년을 기념하는 베트남 미술 공예품 전시회가 평양 대동문 영화관에서 열렸고,<sup>49)</sup> 10월 12일에는 미술대학 교원 팜 반 돈(Phạm Văn Đôn, 1917년생)이 이끄는 북베트남 미술가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하여 자국의 화가들이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 시기에 黨의 정책을 선전하기 위해 밀랍속 이동 전시회에 출품했던 작품들 중 일부를 전시하였다.<sup>50)</sup>

이와 같은 북베트남 문화의 북한 전파와 마찬가지로, 북한 문화의 북

45) 서만일, 『인도기행』, 58~59쪽. 서만일에 의하면, 이 젊은 북베트남의 시인 쑨언 지에우는 프랑스어만을 알았고 자신은 러시아어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저 얼싸 안고 외마디 소리로 서로의 기쁨을 나눌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심장을 손끝으로 가리키고는 또 다시 어깨죽지를 그려안곤 했는데, 말은 몰라도 서로 마음은 통한다는 뜻이었다.

46) 서만일, 『인도기행』, 58, 87, 95쪽; 송영, 『월남일기』, 62, 90, 201쪽.

47) 「조선과 월남간의 문화 교류 계획서 교환」 『로동신문』(1956.08.29), 1쪽.

48) 송영, 『월남일기』, 45, 202쪽; 「잡지 『조선 예술』 창간」 『로동신문』(1956.09.20), 4쪽.

49) 「월남 민주공화국 선포 11주년 기념 월남 미술 공예품 전시회 개관」 『로동신문』(1956.09.05), 3쪽.

50) 송영, 『월남일기』, 178, 181쪽; 「Évvégi összefoglaló 1956, Phenjan」, 51쪽; 「월남 미술가 대표단 래조」 『로동신문』(1956.10.14), 3쪽.

베트남 전과 양상도 1956년 말 송영이 북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에 목격한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년도에 북베트남으로 파견되었던 북한 예술단의 인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sup>51)</sup> 소위 ‘朝類’라고 불릴 만한 사회문화적 현상들이 곳곳에서 포착되었다. 먼저, 현지의 아동들은 小鼓를 두드리면서 「金日成 將軍의 노래」(김원균 작곡, 이찬 작사, 1947)를 부르거나 월북 작가 金學淵의 시 「소년 빨지산 서강림」(1953)을 들으면서 성장하고 있었다.<sup>52)</sup> 그리고 영화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沈影[1910~1971] 주연, 1952)과 『빨찌산 처녀』(文藝峰[1917~1999] 주연, 1954)도 북베트남 대중들에게 인기가 높았다.<sup>53)</sup> 아울러, 라디오 방송의 역할도 흥미롭다. 적어도 1950년 중반에 이르면, “미국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American imperialism and colonialism)”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된 소련, 중공, 북한을 포괄하는 라디오 네트워크가 북베트남에도 비밀리에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sup>54)</sup> 1956년 11월 당시 북베트남 방송은 청취자들에게 “벌써 2cm나 눈이 내린” 양강도의 날씨를 전하거나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유행하던 북한 어린이들의 소년단 행진곡을 들려주고 있었던 것이다.<sup>55)</sup>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1956년 문화 교류 계획서’에 따라 북베트남을 방문한 조선 문화 대표단의 활동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을까? 먼저, 대표단은 단장 송영, 조선 과학원 어문학 연구소장 金炳濟(1905~1991), 화가 李碩鎬(1904~1971), 평양 사범대학 지리학 강좌장 김명근, 무용학교 조선 무용 강좌장 咸貴奉, 작가동맹 외국문학 분과위원회 맹원이자 중국어 통역원 김응룡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56년 10월 28일에 평양을 출발한 조선 문화 대표단은 북경, 河北省 石家莊, 揚子江, 운남성 桂林, 廣西省의 柳州와 南寧 등지를 거쳐 중월 국경지대 중국의 마지막 역인 憑祥<sup>56)</sup>에 도착하여 북베트남 기차로 갈아탄 후, 11월 3일 하노이

51) 송영, 『월남일기』, 122, 134쪽.

52) 송영, 『월남일기』, 116쪽.

53) 송영, 『월남일기』, 254쪽.

54) Sacks, “The Strategy of Communism in Southeast Asia,” p. 228.

55) 송영, 『월남일기』, 21, 125쪽; Arno G. Huth, “Cooperative Radio Agreements: Coordination of Broadcasting Activities in Easter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3 (Aug., 1952), pp. 399, 404.

에 도착하여 호안 끼엠(Hoàn Kiếm) 호수 근처에 숙소를 정하였다.<sup>57)</sup>

기차 속에서 조학래의 『한즘의 흙』을 몇 번이나 읽었던 송영이 단원들과 함께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당시 역에는 북한 대사관 인사들 이외에도 문화부 부부장 꾸 후이 건(Cù Huy Cận, 1919~2005), 대외 문화 연락국 대리국장 부 꾸옥 우이(Vũ Quốc Uy, 1920~1994), 문예회 대표 응우옌 쑤언 싸인(Nguyễn Xuân Sanh, 1920년생) 등을 포함하여 학자, 교수, 작가, 예술가들 100여 명이 꽃다발을 안고 조선 문화 대표단을 맞이하였다.<sup>58)</sup> 당시 문화부 예술국장과 문예회의 상무위원을 겸임하고 있던 시인 응우옌 쑤언 싸인은 문화부와 문예회를 대표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북베트남을] 찾아 온 조선 인민 대표단과 조선 인민군 협주단이 남겨 놓고 간 친선의 우의와 조선 민족 예술의 높은 향기가 전체 베트남 인민들의 가슴 속에 아직까지도 생생한데, 두 번째로 찾아 주신 당신들을 맞이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과 우의가 더욱 깊어집니다.

라고 환영하면서, 이번 대표단 방문을 통해 양국의 문화가 교류되어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든 의견도 함께 피력하였다.<sup>59)</sup> 그러면, 북한 대표단은 이후 1956년 11월 3일부터 12월 8일에 이르는 40일 동안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어떠한 형태의 문화 교류 활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일까?

먼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조선 문화 대표단이 활동했던 지역을 살펴보면, 그들의 활동 영역은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 동(Hà Đông), 하이 풍, 도 썬(Đồ Sơn), 흥 가이, 하 롱(Hạ Long)灣, 박 닌(Bắc Ninh), 타이 빈(Thái Bình), 타이 응우옌(Thái Nguyên) 등지로 확대되어 나갔음을 알 수 있다.<sup>60)</sup> 그리고 대표단은 체류 기간 동안 북베트남의 문화부, 문화부

56) 憑祥驛은 廣西省의 국경 도시인 ‘穆南關’(지금의 友誼關)에 있었다. 중공이 창건되기 전까지는 ‘鎮南關’이라 하였으나, 중공의 탄생과 함께 이곳의 명칭은 “새로운 인민의 나라 북베트남과 형제적으로 화목하게 연계를 짓는” ‘穆南關’으로 바뀌었다. 송영, 『월남일기』, 11쪽.

57) 『월남 방문 조선 문화 대표단 출발』 『로동신문』(1956.10.31), 2쪽; 송영, 『월남일기』, 7, 9, 11~12, 17, 19쪽.

58) 송영, 『월남일기』, 17, 139쪽.

59) 송영, 『월남일기』, 18쪽.

60) 송영, 『월남일기』, 30~38, 40, 46, 94, 127~128, 136~140, 194~199,



산하 단체인 베트남 무대 예술인 협회, 대외 문화 연락국, 작가와 예술가들의 조직인 베트남 문예회, 교육부, 종합대학, 사범대학 등과 접촉하였다.<sup>61)</sup> 아울러, 조선 문화 대표단은 ‘10월 혁명 39주년 기념 야유회’, ‘베트남 소수민족 단결 전람회’, 하노이 노천극장의 연극 공연, 하노이 중앙 국립극장의 특별 공연, 타이 응우옌 성의 문공단 공연 등과 같은 각종 행사에 초대되었거나,<sup>62)</sup> 명승고적과 혁명 유적지 등을 탐방할 수 있었다.<sup>63)</sup>

다음으로, 본격적인 문화 교류 활동은 자료의 수집 및 교환, 강연, 좌담회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조선 문화 대표단의 인사들은 ‘베트남 소수 민족 단결 전람회’에서 마련된 자료들을 취재하고 촬영하였으며, 특히 언어학과 지리학 관련 문헌들도 작성하였다.<sup>64)</sup> 그리고 자료 교환은 양국의 언어학자들과 문예계 인사들 사이에 이루어졌다. 북한의 언어학자들은 『조선어 소사전』과 『훈민정음』을 선사하였고, 북베트남의 언어학자들은 『월불사전』, 『월중사전』, 기타 언어학에 대한 참고 서적 등을 기증하였다.<sup>65)</sup> 아울러, 북한 대표단은 송영의 『석공 조합 대표』(1927), 『일체 면회를 거절하라』(1930), 『백두산은 어데서나 보인다』(1956) 등을 베트남 문예회 간부 작가들에게 한 권씩 나누어주었다.<sup>66)</sup> 또한, 송영은 중문학을 전공한 산문 작가이면서 조학래의 벗이기도 했던 다오 부에게 『한춤의 흥』을 대신 전하면서 그의 안부 인사까지 전달하였고, 소설가 보후이 땀(Võ Huy Tâm, 1926~1996)과는 자신의 단편 『석공 조합 대표』와 그의 장편 *Vùng Mỏ* (鑛區, 1951~1952)를 주고받았다.<sup>67)</sup> 특히, 아동문학과 조선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응우옌 쉰언 씨인은 한국전쟁 시기

207~215, 236~252쪽.

61) 송영, 『월남일기』, 17, 24, 55~57, 62, 65, 108, 165, 169, 191, 199~201, 233, 256, 265쪽.

62) 송영, 『월남일기』, 43~46, 50~53, 72~77, 120~121, 250~252쪽.

63) 송영, 『월남일기』, 30~42, 46~50, 124~128, 136~140, 154~156, 193~199, 207~216, 236~237, 240~250쪽.

64) 송영, 『월남일기』, 215, 265쪽.

65) 송영, 『월남일기』, 56쪽.

66) 송영, 『월남일기』, 64쪽.

67) 송영, 『월남일기』, 62~63, 174쪽.

북한의 “꼬마 애국자”를 주제로 1953년에 발간한 아동 소설 *Phác Kim Tở, em thiếu nữ du kích Triều Tiên* (팍 김 또, 조선의 유격 소녀, 1953)을 송영에게 선사하기도 하였다.<sup>68)</sup>

한편, 북한 측의 강연은 교육부, 문화부, 대외 문화 연락국, 문예회, 무용가들, 홍 팡(Hồng Quang) 및 하이 풍 지역의 문화 관련 종사자들, 사회당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교육 시스템과 사업 경험, 문화 선전성의 조직 및 활동, 대외 문화 연락 협회의 역할, 문학의 현황, 대중문화 및 사업, 미국에 의한 민족문화 침탈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sup>69)</sup> 마찬가지로 북베트남 측의 교육부, 국립촬영소, 타이 응우옌 성 행정위원회, 언어학자들, 작가들, 무대 예술인 협회, 미술가들, 무용가들은 식민지 시기와 ‘8월 혁명’ 이후의 교육계 상황과 교육 간부 양성 실태, 촬영소의 연혁, 북부 지역의 혁명투쟁사, 베트남어의 체계, 구성, 문법 및 쓰임 문학, 현대 문학의 발전 과정과 베트남 문예회의의 성격, 전통극과 현대극, ‘8월 혁명’ 시기와 항전 이후 미술계의 동향, 무용계가 처한 난관 등을 조선 문화 대표단에게 소개하였다.<sup>70)</sup> 그리고 함귀봉은 인민국 총정치국 문공단 연습실에서 북베트남 무용가들에게 「한강수타령」의 안무를 가르쳐 주었고, 그들로부터 샷샷 춤을 배우는 노력도 기울였다.<sup>71)</sup>

인터뷰나 연구회 형식으로 진행된 좌담회는 개인별 혹은 부문별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송영은 소설가 보 후이 땀 및 응우옌 쯡 호안, 시인 호 쯡 히에우(Hồ Trọng Hiếu, 1900~1976), 혁명 영웅 딘 늑, 하이 풍 출신의 운전사 팜 반 비(Phạm Văn Vị), 타이 빈 출신의 여성 전사 응우옌 티 쯤옌(Nguyễn Thị Chiên, 1930년생) 등과 대화를 나누면서

68) 송영, 『월남일기』, 64쪽; Nguyễn Huy Thắng, “Vợ Chồng Nhà Thơ Nguyễn Xuân Sanh Và Nhà Văn Nguyễn Thị Cẩm Thanh,” 08/06/2009. <http://www.nxbkimdong.com.vn> (검색일: 2013.05.03); “Phần Tham Khảo: Các Nhà Văn Hiện Đại Quảng Bình.” [http://giaovan.violet.vn/present/show/entry\\_id/4529434](http://giaovan.violet.vn/present/show/entry_id/4529434) (검색일: 2013.05.03). 송영의 『월남일기』에는 서명이 “『박금동(朴今童)』”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로 보인다.

69) 송영, 『월남일기』, 146~147, 164~165, 169, 199, 228~229, 239쪽.

70) 송영, 『월남일기』, 54~55, 60~61, 65~71, 80~83, 109~112, 102~107, 187, 230, 236~237, 250, 257~262쪽.

71) 송영, 『월남일기』, 169, 187, 199, 216, 228~229쪽.

베트남 문학계의 현황, 풍자문학의 중요성, 항전 시기 다양한 계층들의 애국적 활동 등을 이해할 수 있었다.<sup>72)</sup> 그리고 부문별 좌담회는 북한과 북베트남의 언어학자들, 지리학자들, 무용가들, 미술가들, 작가들 사이에 진행되었는데, 특히 언어학자들은 양국 언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意味論的 측면에서 공통성을 발견하여 향후에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sup>73)</sup>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1956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밀접해진 북한과 북베트남의 유대 관계는 1956년 말 조선 문화 대표단의 북베트남 방문과 다양한 형태의 문화 교류 활동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월남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송영의 북베트남 체험은 공식적인 조선 문화 대표단 활동이 진행되던 과정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 교류의 또 다른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40일 동안 타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느꼈던 ‘감성적인’ 친숙감과 이질감은 송영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개인적이면서도 ‘이성적인’ 문화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였을까?

#### IV. 송영의 문화 체험: ‘감성’과 ‘이성’의 교차

우선, 송영은 체류 기간 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현지 문화에 대해 친숙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함경도의 三防峽谷과 비슷한 목남관, 푸른 하늘빛, 농촌과 산촌의 집들을 둘러싼 울타리, 원두막 같은 소수종족의 주상가옥, 해금강처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하 룡 만, 평안도의 洞龍窟과 같은 하 룡 만의 南天洞窟, 사철나무처럼 생긴 紅樹, 느티나무와 흡사한 龍樹 등과 같은 경관에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sup>74)</sup> 그리고 인절미와 똑같은 “뽕(côm)”이란 떡, 찹쌀만큼 매우 찰지고 향취가 있는 멥쌀, 그

72) 송영, 『월남일기』, 85~101, 112~120, 147~154, 170~175, 201~206, 216~227쪽.

73) 송영, 『월남일기』, 56~57, 83~85, 108, 166~169, 187~189, 191~192, 199, 216쪽.

74) 송영, 『월남일기』, 12, 14, 23, 137~138, 247쪽.

리고 입맛에 맞는 느억 맘(nước mắm)을 맛보았던 송영에게<sup>75)</sup> 하노이 응옥 썬(Ngọc Sơn) 사당의 탑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돌들, ‘베트남 소수 민족 단결 전람회’에서 본 어떤 獨線琴, 머리에 장작은 이고 있는 현지 여성들은 성황당, 깡깡이, 조선의 아낙네들을 연상시켰다.<sup>76)</sup>

또한, 이러한 경험은 베트남의 문학 작품, 연극, 음악 체험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田禹治傳』의 주인공이 왕을 속여 차지하게 된 금으로 “安南米”를 들여와 빈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는 옛날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있던 송영은 19세기 초 응우옌 주(Nguyễn Du, 1765~1820)가 지은 *Kim Vân Kiều* (金雲翹)가 『春香傳』이나 『謝氏南征記』와 비슷한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sup>77)</sup> 그리고 북베트남 국립 중앙 예술단이 공연한 민간극 *Quan Âm Thị Kính*의 내용이 고려시대의 민간 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현지 연출가의 설명은 송영에게 두 지역의 문화 교류 전통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켜 주었다.<sup>78)</sup> 아울러, 송영은 70대의 원로 소리꾼이 들려주던 풍자 민요 「과부의 고민 노래」를 들으며 조선시대의 남녀 불평등 현실과 신분 사회의 질곡을 질타하던 「노처녀가」를 떠올리곤 하였다.<sup>79)</sup>

한편, 이와 같은 사회적, 문화적 공감대 이외에 송영 자신이 일상에서 체험해야 했던 현지의 ‘낮선’ 모습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초겨울에 평양을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아 여름의 삼복더위로 돌아 온 송영에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여름의 나라”에 대한 “그 감상이란 뭐라고 형용하기조차 어려웠다.”<sup>80)</sup> 그리고 주렁주렁 늘어진 바나나 송이, 새빨강게 익은 오렌지, 맨발로 돌아다니는 농민들, 모내기·김매기·추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논, 물이 그득한 논을 왕래하는 거룻배와 선혜엄을 치는 듯 논을 가는 물소, 숙소 천장 위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도마뱀들과 같은 진풍경을 목격한 송영은 북베트남의 이국적 정취를 ‘상상’이 아

75) 송영, 『월남일기』, 38, 59, 249, 259, 267쪽.

76) 송영, 『월남일기』, 32~33, 51, 132쪽.

77) 송영, 『월남일기』, 173, 183쪽.

78) 송영, 『월남일기』, 183, 258쪽. 송영은 *Quan Âm Thị Kính* 을 『觀音寺悲話』로 번역하였다.

79) 송영, 『월남일기』, 259~260쪽.

80) 송영, 『월남일기』, 11, 15쪽.

닌 ‘현실’로써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sup>81)</sup> 또한, 이러한 ‘낯선’ 경험들은 현지 여성들을 관찰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나비 날개 같이 가벼운 분홍빛, 초록빛의 아오 자이(áo dài)를 입은 젊은 여배우들”과 “자전거를 타고 아오 자이 자락을 바람에 날리는 아름다운 처녀들” 이외에도, 북베트남 곳곳에서 대프랑스 투쟁에 참여했던 여성 혁명 영웅들과 공장 및 건설 현장과 항구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송영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sup>82)</sup>

그런데 이와 같은 ‘낯선’ 체험들은 현지 공연 문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첫 번째는 북베트남 예술 공연의 전통과 改組의 부조화였다. 송영은 베트남 인민군 문공단 공연이 앞으로 “자기의 민족 가요를 주체적으로 부활시키며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평가하였고, 개량극 『鳳儀亭』도 “고전의 원형이 가진 맛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하였다.<sup>83)</sup> 그리고 전통 무용을 계승, 발전시킨 목탁춤, 샷샷춤, 참대춤들의 안무가 “지나치게 서양화”되어 있어서 송영의 눈에 거슬렸고, 마찬가지로 타이 응우옌 성 문공단이 선보인 무용극의 피날레 안무에는 전통적인 무용과 외국의 무용이 부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서 민족 문화를 현대적 형식에 맞게 너무 급진적으로 개조하려는 경향이 농후하게 보였다.<sup>84)</sup>

다음으로 언급할 수 있는 송영의 지적은 ‘웃음’을 둘러싼 창작 기법이나 관중들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는 11월 11일 하노이 노천극장에서 국립 중앙 문공단 직속의 현대 극단이 토지개혁을 주제로 상연한 전방(Trần Bảng, 1926년생)의 오페라 *Con Trâu Hai Nhà* (두 집의 소, 1956)를 관람한 이후, 이 작품의 도식적인 구성과 통속적인 기법 이외에도 관중들이 “비속하다고 할만치 지나친 과장들과 부자연스러운 유머”에 열광적으로 박수갈채를 보내던 상황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sup>85)</sup> 그리고 20일에 방문한 하이퐁 지역에서도 촌극을 관람한 송영은 “웃기는 장면

81) 송영, 『월남일기』, 14, 16, 128~129, 134, 234쪽.

82) 송영, 『월남일기』, 17, 24, 41, 131, 157~159, 208, 214~215쪽.

83) 송영, 『월남일기』, 123, 186쪽.

84) 송영, 『월남일기』, 123, 252쪽.

85) 송영, 『월남일기』, 73~76쪽.

이 너무나 여러 번 중복되어 내가 보기에는 탁 잘라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관중들은 도리어 이런 것을 좋아했다”면서, 현지 대중문화의 통속성을 비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다.<sup>86)</sup> 또한, 23일 하노이에서 『三國志』 내용의 일부를 가극화한 개량극 『봉의정』을 관람하였는데, 이 고전 개량극의 “과장된 웃음”과 “지나치게 요염한” 여배우의 연기가 역시 아쉬운 점이였다.<sup>87)</sup>

그러면 과연 송영이 지적인 공연 예술 문화의 “지나친 서양화”와 “과장된 웃음”을 당시 북베트남의 현실과 결부시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먼저, “지나친 서양화”와 관련하여, “하노이시는 규모가 작은 파리로구나”라는 송영의 하노이 체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각기 다른 모양을 한 양옥집들, 프랑스식의 화려한 극장, “파리식 양복들”을 차려 입은 지식인들은 현지에 여전히 남아 있던 식민지 시대의 “근대적” 유산과 파리의 “모더니즘”을 떠오르게 하였다.<sup>88)</sup>

특히, 1956년 11월 23일 오후에 조선 문화 대표단 전원이 하노이 교외의 농촌 지대에 위치한 미술 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송영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학교 교감의 안내를 받으며 세 개의 교실을 둘러보았는데, 모든 교실의 학생들이 나체 모델을 놓고 데생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한 교실에서는 반쯤 드러누워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고, 또 한 교실에서는 벌거벗은 노동자가 강인한 근육을 보여 주고 서 있었으며, 나머지 교실에서는 여성 한 명이 웅크리고 앉아 반나체의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송영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 일행 중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나체의 현물을 처음으로 보는지라 너무나 아연해서 고개들을 돌리었다”고 한다.<sup>89)</sup> 나체 모델을 구하기 대단히 어려웠던 하노이 근교 농촌 지역에서조차도 나체화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sup>90)</sup> 하노이 도심의 상황은 보다 자유분방한 분위기였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한데, 베트남 문화에 익숙하지 않던 송영이 이러한 현지 공연 문화

86) 송영, 『월남일기』, 159~160쪽.

87) 송영, 『월남일기』, 182~186쪽.

88) 송영, 『월남일기』, 23~24, 57, 72, 121, 155, 228쪽.

89) 송영, 『월남일기』, 175, 178, 182쪽.

90) 송영, 『월남일기』, 178쪽.

의 ‘서양화’와 ‘선정성’ 정도를 편견 없이 파악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sup>91)</sup>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당시 북한에서 추진되고 있던 문예정책이다. 송영이 북베트남으로 떠나기 직전인 1956년 10월 14~16일 평양 국립예술극장에서 진행된 제2차 작가대표자 대회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예술 창작의 기본 원칙으로 역설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 전통과 민족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고전 연구 사업도 함께 강조하였다.<sup>92)</sup> 그러므로 이미 상당히 급진적인 서구화를 경험한 북베트남의 현실과 195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민족적 특성론’이 전개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을 ‘신전통’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북한의 현실을<sup>93)</sup> 고려한다면, 개조를 거듭 강조하던 어떤 북베트남 무용가의 생각에 대해 “개조를 너무 성급하게 하느라 그 원형까지 허물어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송영의 다소 경직된 정치적 판단은<sup>94)</sup>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보다’ 엄숙하고 ‘덜’ 자유로운 북한 사회 분위기에 익숙한 송영이 비판적으로 바라본 북베트남 공연 예술의 ‘웃음’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후에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스러운 당시의 분위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송영 자신도 하노이 지역에서 흥미롭게 관찰한 바와 같이, 자신이 찾아 간 노천극장에는 “쌍쌍이 앉아 있는 청년 남녀들”로 가득하였다. 그리고 쪽 바익(Trúc Bạch) 호수 주변의 녹음 아래에 놓여 있는 나무 의자에는 청년 남녀들이 쌍쌍이 앉아서 정답게 속삭이다가 사람이 지나가도 피할 줄 모르고, 다만 여인이 자기 머리에 썼던 논(nón)을 손으

91) 월북 화가 박문원(1920~1973)도 1956년 11월 말 평양에서 개최 중이던 북베트남 미술 전람회에 다녀온 후에, “8월 혁명 전의 일부 작품들, 특히 유화에서 식민지 시대에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서구라파, 특히는 불란서 부르쥬아 형식주의 및 탐미주의적인 요소들을 찾아 볼 수 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박문원,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 - 월남 미술 전람회를 보고 -」 『로동신문』(1956.11.26), 3쪽.

92) 「제2차 조선 작가 대회 개막」 『로동신문』(1956.10.15), 1쪽; 「제2차 조선 작가 대회 폐막」 『로동신문』(1956.10.17), 4쪽; 「제2차 조선 작가 대회 보고」 『로동신문』(1956.10.18), 1쪽. 당시 송영은 대회 집행부에 속해 있었다.

93) 이상숙, 「북한문학의 전통과 민족적 특성」 『한국어문학연구』 46(2006.02), 62~68쪽.

94) 송영, 『월남일기』, 123쪽.

로 끌어내려 그 남자의 머리까지 가릴 뿐이었다.<sup>95)</sup> 그리고 호안 끼엠 호수 근처에서 “쌍쌍이 웃음을 짓거나” 바익 타오(Bách Thảo) 공원 일대를 “희희낙락하며” 자전거로 오가는 청년 남녀들도 송영에게는 인상적인 모습이었다.<sup>96)</sup>

이처럼, 무대 공연과 일상에서 부자연스럽거나 험프게 보이던 당시 베트남 사람들의 ‘웃음’은 송영이 대화를 나눈 풍자 시인 호 쯡 히에우의 말을 통해 또 다른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호 쯡 히에우는 자신의 ‘풍자시론’을 설명하면서,

웃음은 생활의 나아가는 길이며 승리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쾌한 중에 깊은 감동을 준다는 것은 곧 혁명적 낙천주의를 배양시키는 것입니다. 베트남 인민들이 승리한 커다란 원인 하나가 바로 이 혁명적 낙천주의입니다. 적을 야유함으로써 인민들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동시에 승리에 대한 굳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풍자시가 인민들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까닭은 풍자시의 위력이 오직 인민에게 의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자시는 지금 적을 물리치는 웃음의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후대에 오래 남아 있을 고전적 가치도 갖게 됩니다.

라고 강조하였다.<sup>97)</sup> 송영 자신도 현지 민요, 특히 박 닌 민요의 낙천적인 낭만성과 유격전에 참가했던 농민들이나 수공업자들의 명랑하고 낙천적인 기질을 지적한 바 있는데,<sup>98)</sup> ‘웃음’에 대한 호 쯡 히에우의 이와 같은 견해도 함께 고려한다면, 북베트남의 예술가들은 ‘풍자시’나 다양한 장르의 무대 예술을 통해 낙천적인 성격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웃음’으로 표출시키는 대중들의 성향을 전시나 위기 상황에 투쟁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아울러, 당시 북한의 정치 상황이나 지적 풍토와 비교되는 북베트남의 현실을 지켜보던 송영의 ‘웃음’에 대한 ‘낮선’ 시선이 ‘감성’에서 ‘이성’으로 조금씩 변화해 가는 모습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조선 문화 대표단

95) 송영, 『월남일기』, 50, 72쪽.

96) 송영, 『월남일기』, 31, 47쪽.

97) 송영, 『월남일기』, 31, 47쪽.

98) 송영, 『월남일기』, 123, 197, 214쪽.



활동을 통해 느낀 바가 많았다고 정리하면서, 그중에서도 그가 “절절히 느낀 것은 베트남 사람들의 일하는 태도가 겸손하며 관료주의적인 것이 거의 눈에 안 띈다”는 점이였다. 1955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당과 국가 기관에 남아 있는 관료주의를 청산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토의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sup>99)</sup> 송영은 북베트남 정계와 예술계의 비관료적인 분위기에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다.

실제, 송영은 11월 7일 ‘10월 혁명 39주년 기념 야유회’에서 처음 만나게 된 호 쯔 민 주석을 “조선의 농촌 노인 같이 수수하고 겸손하고 소탈하게 생겼다”고 묘사하고 있다.<sup>100)</sup> 그리고 15일 교육부의 사범국장이 교육 간부 양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자마자 보통 교육국 1급 교원 양성소의 소장이 “간부 양성 과정의 어려움 중에 왜 그것 말고 이러저러한 것들이 더 있는데 말하지 않느냐?”고 반박하듯이 말했을 때, 송영은 북베트남 교육부 관리들의 이러한 “허심탄회한” 토론 태도를 높이 평가하였다.<sup>101)</sup> 또한, 조선 문화 대표단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은 북한의 “유일한 창작 방법”이라고 북베트남 미술가들과 작가들에게 단언하듯 설명했을 때, 찬성을 표시하는 사람들 이외에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sup>102)</sup> 송영으로 하여금 ‘덜’ 획일화된 현지 예술계의 ‘보다’ 개방적인 풍토를 체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와 관련된 당시 북베트남의 분위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

9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로동신문』(1955.04.05), 1쪽.

100) 송영, 『월남일기』, 46쪽. 호 쯔 민의 북한 방문 당시나 김일성의 북베트남 방문 당시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깡마른 호 쯔 민은 수수한 인민복 차림이었고, 살이 상당히 쯤 김일성은 말끔한 양복 차림이었다. Đặng Thanh Hà, “Triển Lãm Về Mối Quan Hệ Hữu Nghị Việt Nam-Triều Tiên,” 09/10/2009, *Nhân Dân*; Đặng Thanh Hà, “Triển Lãm Quan Hệ Hữu Nghị Việt Nam-Triều Tiên Nhân 60 Năm Ngày Thiết Lập Quan Hệ Ngoại Giao,” 22/01/2010, *Nhân Dân*. <http://www.nhandan.com.vn/suckhoe/itemlist/search.html?searchword=kim%20nhật%20thành&limitstart=0> (검색일: 2013.05.30).

101) 송영, 『월남일기』, 112쪽.

102) 송영, 『월남일기』, 108, 169, 188~189쪽.

할 수 있다. 1953~1956년에 걸쳐 실시된 토지개혁이 실패로 드러나자, 1956년 9월에 진행된 노동당 제10차 확대 전원 회의는 토지개혁의 “엄중한 과오들”을 인정하고 11월에 토지개혁 과정에서 투옥되거나 강제노동에 처해진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면서 민주화 계획을 약속하게 되었다.<sup>103)</sup> 그리고 중공에서 전해진 ‘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의 영향으로 1956년 하노이의 지식인들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였다.<sup>104)</sup> 비록 송영 자신도 체류 당시인 1956년 11월 말에 문화부와 문예회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헝가리 반공의거’를 지지하던 “반동적 부르주아” 문학평론지 *Nhân Văn* (人文)이 정부에 의해 폐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강연이나 좌담회에서 마주친 북베트남의 작가들과 미술가들은 “百家爭鳴”을 근거로 당시 치열하게 논쟁 중이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대안이나 문화부 예술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그에게 거침없이 의견을 구했던 것이다.<sup>105)</sup>

이처럼 조선 문화 대표단의 활동을 통해 북베트남이 1956년 말에 직면해 있던 ‘덜’ 엄숙하고 ‘보다’ 자유로운 현실과 문화를 목도할 수 있었던 송영은 호 쩡 히에우와의 대화를 통해 풍자 문학의 사회적, 정치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모두 상들을 쩡그리고 꿇대만 올리고 점잖게 얹전하게 엄숙하지만 말고, 허심탄회한 웃는 얼굴, 웃음소리로써 인민 대중을

103) 「월남에서 토지개혁 기본적으로 완수」 『로동신문』(1956.07.26), 4쪽; 「월남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10차 확대 전원 회의 진행」 『로동신문』(1956.11.01), 4쪽; Edwin E. Moise, *Land Reform in China and North Vietnam: Consolidating the Revolution at the Village Level* (Chapel Hill, N. 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3), pp. 237~268;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서울: 이산, 2002), 390~392쪽. 이러한 북베트남 정부의 동향과 관련하여, 1986년 12월에 개최된 베트남 공산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 상황도 흥미롭다. 당시 은퇴하는 당서기장 쓰영 쩌은 1985년 이후 당의 참담한 경제 실패를 신랄하게 자아비판 하였는데, 당의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질책한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한다. 梁好民, 「毛澤東思想이北韓과 베트남에 미친 영향 - 몇가지 역사적 근원에 대한 재고찰」 김달중, 스칼라피노 共編 앞의 책, 98~99쪽.

104) Bernard B. Fall, *The Two Viet-Nams* (2<sup>nd</sup> Revised Edi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84), pp. 180~190; 유인선, 위의 책, 392쪽.

105) 송영, 『월남일기』, 71~72, 167, 169, 188, 192, 204~205쪽.

대하자”고 공언하게 되었다.<sup>106)</sup> 그리고 이러한 송영의 주장이 예상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면적인 문화 체험을 통해 자신이 처음에 ‘감성적으로’ 비판했던 북베트남의 이질적인 ‘웃음’ 문화를 ‘보다’ 엄숙하고 ‘덜’ 자유로운 자국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성적인’ 출발점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 V. 맺음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부터 형성된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는 한국전쟁과 공식적인 외교관계 확립을 계기로 공고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차 깊어지게 된 양국의 유대감은 북한이 북베트남으로 대표단, 예술단 등을 파견하는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문화 교류는 1956년 공산 국가들의 간의 협력 관계에 힘입어 보다 다채로운 형태로 전개되어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긴밀해진 북한과 북베트남의 유대 관계는 1956년 말 조선 문화 대표단의 북베트남 방문과 현지에서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현지 체험과 정보를 축적한 송영 개인은 ‘감성적인’ ‘流路’와 ‘思問’을 거치며 북베트남 사회를 보다 깊게 이해하거나 현지 문화의 특수성을 통해 자국의 문제점을 ‘이성적으로’ 발견하고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북베트남 측은 귀국을 앞두고 친선 교류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송영에게 1957년에 양국이 문화 대표단과 유학생을 상호 파견할 것을 타진하면서, 그 외에 영화, 민속악기, 문학 작품, 미술 작품, 사진, 레코드, 신문 자료 등도 서로 교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강조한 점은 북한의 문화 대표단에 ‘최승희 무용 예술단’이 반드시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다.<sup>107)</sup> 물론, 이러한 북베트남의 요구가 향후 양국의 문화 교류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의 여부를 현재로서는 정확히

106) 송영, 『월남일기』, 101쪽.

107) 송영, 『월남일기』, 8, 255~256쪽.

과약할 수 없지만, 현지에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한 조선 문화 대표단이 1956년 12월 10일 하노이를 떠난 이후에도 양국의 문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해 12월 23일부터 28일 사이에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차 아시아 작가회의에 참가한 북베트남 대표 응우옌 쑹 호안, 호 쩡 히에우, 부 아인 카인(Vũ Anh Khanh, 1925년생)은 북한 단장 한설야와 단원 서만일을 조우하게 되었다.<sup>108)</sup> 그리고 북한의 역사학자 이나영은 양국의 문화 교류 계획에 의하여 1957년 초 북베트남을 방문하여 현지의 역사학자들과 역사 연구의 진행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sup>109)</sup>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하노이에서 양국의 문화 교류 계획서가 교환되었고, 북베트남의 인민국 총정치국 선동 훈련단 부국장과 예술단이 평양으로 파견되었다.<sup>110)</sup>

이러한 상황에서, 호 쩡 민은 예술단과 함께 1957년 7월 7일부터 12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분단 상황을 해결하고 대미항쟁에 진력하기 위해 연대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이후 북한은 8월 1일에 북베트남 수재민 구호금으로 5만루블의 무상원조를 제공할 것을 결정하여 9월에 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양국 간의 친선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sup>111)</sup> 그리고 김일성은 1958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북베트남을 방문하여 사회주의 국가 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주장함으로써 경제, 과학,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쌍방 간의 교류와 친선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sup>112)</sup>

108) 「아세아 작가 대회에 참가할 조선 작가 대표단 출발」 『로동신문』(1956.12.08), 1쪽; 「아세아 작가 대회 개막」 『로동신문』(1956.12.26), 4쪽; 「아세아 작가 대회」 『로동신문』(1956.12.27), 4쪽; 「아세아 작가 대회 폐막」 『로동신문』(1956.12.31), 1쪽; 송영, 『월남일기』, 9쪽; 「亞洲作家會議 十三個國代表 參席」 『朝鮮日報』(1956.12.26), 4쪽; 「亞洲 14國 作家會議 28日 印事 閉幕」 『朝鮮日報』(1956.12.30), 1쪽; 堀田善衛, 『インドで考えたこと』, 117~121쪽.

109) 리나영, 「학계소식: 월남에서의 역사과학의 발전」 『역사과학』(1957), 73쪽.

110) 調査研究室, 「北韓年表」 『北韓』, 9(1972.09), 289쪽; 國會圖書館 海外資料局, 『北韓의 條約集』, 447쪽.

111) 北韓研究所 편, 앞의 책, 368쪽; 調査研究室, 「北韓年表」 『北韓』, 9, 290쪽.

112) 北韓研究所 편, 위의 책, 368쪽.

이처럼, 1956년 말 조선 문화 대표단의 북베트남 활동 이후 양국 간의 관계가 급진전하고 있었을 때, 송영과 함께 현지를 방문하여 북한 대표단의 중국어 통역으로 활약했던 김응룡은 혁명 시인 또 호우가 항전 근거지인 북부 산간 지대에서 소수종족들의 애국적 투쟁 상황을 소개하기 위해서 1954년에 발간한 시집 *Việt Bắc* (越北)을 1956년 北京의 作家出版社에서 간행된 중역본을 이용하여 1958년 4월에 평양의 국립문예서적출판사를 통하여 『월북』이라는 제목의 한글 번역서로 발행하였다. 또한, 1959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평양의 역사연구소를 방문한 북베트남 과학위원회 위원이자 역사학자인 쩌 후이 리에우(Trần Huy Liệu, 1901~1969)는 ‘북한’의 고대사와 중세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양국 간의 문화 교류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sup>113)</sup> 당시 그를 동행했던 쩌 반 잭(Trần Văn Giáp, 1902~1973)은 13세기 경 고려에 정착한 리(Lý) 왕조의皇子 리 롱 뜨엉(Lý Long Tường) 관련 자료를 현지에서 수집하여 북베트남 역사학계의 양국 교류사 연구에 기여하기도 하였다.<sup>114)</sup> 아울러, 1930년대 초반부터 하노이의 프랑스 원동학원(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도서관에서 김영진과 함께 학술 활동을 하던 쩌 반 잭이 조선과 베트남의 사신이 주고받은 상당수의 시문들을 번역하게 된<sup>115)</sup> 계기도 1956년 말 조선 문화 대표단의 활동이 새롭게 마련해 놓은 북한과 북베트남의 활발한 문화 교류에서 그 기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 이어진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197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과 중월전쟁을 계기로 파국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현재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교류와 협력의 성과에 비하면, 2012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기념모임”은 어떤 면에서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향후 북한과 북베트남이 1956년 조선 문화 대표단의 경우와 같이 시의적절한 전기를

113) 역사과학편집부, 「학계소식: 월남 력사학자들의 래방」, 『력사과학』(1959), 66~67쪽.

114) 윤대영, 앞의 논문, 92쪽.

115) 윤대영, 위의 논문, 63, 66쪽.

맞이하어 양국 관계가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복구된다면, 한반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적인’ 중재자로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우호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K C I

## ■ 참고문헌

### 1차 자료

『국가기록원문서』 : 『Évvégi összefoglaló 1956, Phenjan』(1956년 보고서, 평양), 생산기관: 헝가리 국립기록보존소, 관리번호: CTA0005227, 등록일자: 1957.06.03, 1~52쪽.

『외교사료관문서』 : 「대사 파견 - 월남」(분류번호: 711.1VT, 등록번호: 20), 「대사 부임 - 월남」(분류번호: 711.2VT, 등록번호: 35).

『國民報』.

『東亞日報』.

『로동신문』.

『自由新聞』.

『朝鮮日報』.

『영원한 친선』(평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9), 193쪽.

國會圖書館 海外資料局, 『北韓의 條約集: 1949-1982』 海外資料 第68號(서울: 國會圖書館, 1982), 527쪽.

역사과학편집부, 「학계소식: 월남 역사학자들의 래방」, 『역사과학』(1959), 66~67쪽.

리나영, 「학계소식: 월남에서의 역사과학의 발전」 『역사과학』(1957), 73~80쪽.

변희근, 「영웅의 나라 월남」 국립출판사 편 『국제적 벼를 찾아서 - 몽고, 월남,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방문기』(평양: 국립출판사, 1956), 113~147쪽.

서만일, 『인도기행』(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221쪽.

송영, 『월남일기』(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268쪽.

조학래, 『한중의 흙』(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159쪽.

조학래, 「월남 시초」 『국제적 벼를 찾아서 - 몽고, 월남,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방문기』(평양: 국립출판사, 1956), 148~159쪽.

堀田善衛, 『インドで考えたこと』(東京: 岩波書店, 1957), 210쪽.

### 저서 및 논문

고병철, 「북한의 대동남아정책」 박재규 편 『전환기의 동남아세아』(마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77), 296~301쪽.

- 김달중,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 共編, 『아시아 共產主義의 持續과 變化: 中國·北韓·베트남』(서울: 法文社, 1989), 505쪽.
- 金昶熙, 「東아시아 共產主義 國家에 관한 比較 研究」 『호남정치학회보』(호남정치학회) 3(1991), 185~212쪽.
- 金學俊, 「韓國休戰에 關한 諸構想의 分析」 『論文集』(서울大學校 附設 國際問題研究所) 3(1976), 109~283쪽.
- 류길재, 「베트남과 북한의 '민족해방혁명」 『한국과 제3세계의 민주변혁』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엮음(마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285~331쪽.
- 박성관, 「북한의 대동남아 외교변화」 『國際政治論叢』(한국국제정치학회) 43-3 (2003.09), 235~253쪽.
- 北韓研究所 편, 『北韓總監』(서울: 北韓研究所, 1983), 2044쪽.
- 北韓研究所研究室, 「北韓年表」 『北韓』(서울: 北韓研究所) 3(1972.03), 282~286쪽.
- 北韓研究所研究室, 「北韓年表」 『北韓』 5(1972.05), 320~324쪽.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한국경제연구소, 『輸出振興을 위한 越南經濟研究』 海外經濟研究 1, 2(서울: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1969).
- 宋敏鎬, 「北韓의 文藝政策과 '種子論」 『北韓』 65(1977.05), 156~163쪽.
- 신윤환, 「북한의 전쟁 위협과 아세안 바라보기」 『서남포럼 뉴스레터』 186 (2013.04.10). [http://www.seonamforum.net/newsletter/letter\\_view.asp?idx=240](http://www.seonamforum.net/newsletter/letter_view.asp?idx=240) (검색일: 2013.04.17).
- 外交通商部, 『韓國外交 50年: 1948-1998』(서울: 外交通商部, 1999), 457쪽.
- 원용석, 『越南戰과 韓國』(서울: 元無任所長官室, 1966), 255쪽.
-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서울: 이산, 2002), 480쪽.
- 유인선,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 양국관계의 어제와 오늘 -』(서울: 창비, 2012), 536쪽.
- 윤대영, 「김영건의 베트남 연구 동인과 그 성격」 『동남아시아연구』(한국동남아학회) 19-3(2009.10.31), 57~100쪽.
- 윤영천, 『형상과 비전』(서울: 소명출판, 2008), 403쪽.
- 이상숙, 「북한문학의 전통과 민족적 특성」 『한국어문학연구』(한국어문학연구학회(구, 동악어문학회)) 46(2006.02), 61~94쪽.
- 이상숙, 「1960년대 중반 북한-중국의 갈등과 북한의 자주노선」 『북한학연구』(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3-2(2007), 151~172쪽.
- 調査研究室, 「北韓年表」 『北韓』 6(1972.06), 331~334쪽.
- 調査研究室, 「北韓年表」 『北韓』 7(1972.07), 313~316쪽.



- 調査研究室, 「北韓年表」 『北韓』 9(1972.09), 288~294쪽.
- 조진구, 「중소대립, 베트남 전쟁과 북한의 남조선혁명론, 1964~68」 『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14(2003.12), 227~256쪽.
- 최병욱, 「한월 교류사 개관」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제24회 동아시아한국학 학술회의 자료집: 한국과 베트남 사신, 북경에서 만나다』(장소: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일시: 2013.02.21), 77~98쪽.
- 崔常壽, 『韓國과 越南과의 관계』(서울: 韓越協會, 1966), 410쪽.
- 멀 프리브나우(Merle Pribbenow), 「베트남 상공의 북한 조종사들」 『北韓』(北韓研究所) 486(2012), 92~95쪽.
- 洪圭德, 「북한의 대동남아정책: 남방외교의 평가」 『國際政治論叢』 34-2(1995), 37~54쪽.

“Phản Tham Khảo: Các Nhà Văn Hiện Đại Quảng Bình.” [http://giaovan.violet.vn/present/show/entry\\_id/4529434](http://giaovan.violet.vn/present/show/entry_id/4529434) (검색일: 2013.05.03).

Đặng Thanh Hà, “Triển lãm về mối quan hệ hữu nghị Việt Nam-Triều Tiên,” 09/10/2009, *Nhân Dân*. <http://www.nhandan.com.vn/suckhoe/itemlist/search.html?searchword=kim%20nhật%20thành&limitstart=0> (검색일: 2013.05.30).

Đặng Thanh Hà, “Triển lãm Quan hệ hữu nghị Việt Nam- Triều Tiên nhân 60 năm ngày thiết lập quan hệ ngoại giao,” 22/01/2010, *Nhân Dân*. <http://www.nhandan.com.vn/suckhoe/itemlist/search.html?searchword=kim%20nhật%20thành&limitstart=0> (검색일: 2013.05.30).

Nguyễn Huy Thắng, “Vợ Chồng Nhà Thơ Nguyễn Xuân Sanh Và Nhà Văn Nguyễn Thị Cẩm Thạnh,” 08/06/2009. <http://www.nxbkimdong.com.vn> (검색일: 2013.05.03)

AVI/CVN, “En l'honneur du centenaire du président Kim Il-sung,” *Le Courrier du Vietnam* le 22 février 2012. <http://lecourrier.vnanet.vn/lecourrier/fr-fr/home/default.aspx> (검색일: 2012.02.23).

Fall, Bernard B., *The Two Viet-Nams* (2<sup>nd</sup> Revised Edi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84), p. 507.

Huth, Arno G., “Cooperative Radio Agreements: Coordination of Broadcasting Activities in Easter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6.3 (Aug., 1952), pp. 396~406.

Moise, Edwin E., *Land Reform in China and North Vietnam: Consolidating the Revolution at the Village Level* (Chapel Hill, N. 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3), p. 305.

Sacks, Milton “The Strategy of Communism in Southeast Asia,” *Pacific Affairs* 23.3 (Sep., 1950), pp. 227~247.

Woolsey, L. H. “The United States and Indo-China,”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48.2 (Apr., 1954), pp. 276~281.

松本三郎, 川本邦衛 編, 『ベトナムと北朝鮮 - 岐路に立つ二つ國 -』(東京: 大修館書店, 1995), 454쪽.



# The Relations 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Vietnam in the 1950s: Based around the Cultural Delegation of North Korea to North Vietnam in 1956

Youn, Dae-Yeong\*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North Vietnam) after the Second World War, focusing on the role of 'the Cultural Delegation of North Korea' sent to North Vietnam in the late 1956.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Vietnam started to be established since 1950. Moreover, the collaboration that the two countries began during the Korean War was an enormous step forward in the evolution of their foreign policy cooperation. After the Korean War, coming into close relation with North Vietnam, North Korea sent some delegations to the country in order to form a strategic partnership.

It i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at Communist bloc countries decided to strengthen their mutu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joint interest, especially from 1956. As a result, 'the Cultural Delegation of North Korea', that was dispatched to North Vietnam in the late 1956, contributed to place Pyeong Yang - Hà Nội ties on a firm footing. It is also remarkable that the image of North Vietnam made some impressions on Song Yeong, the leader of the delegation at that time. In some respects, the perception of North Vietnam helped him to keep a critical

---

\* HK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 / popeyevn@sogang.ac.kr

mind toward the intellectual group of North Korea. Later, this kind of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contributed to the harmoniou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Key Word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North Korea, North Vietnam, the Cultural Delegation of North Korea, Song Yeong

K C I

논문투고일 : 2013.5.10

논문심사일 : 2013.5.16

게재확정일 : 2013.5.30